

‘김승섭 극장골’ 제주SK 다이렉트 강등 탈출

후반 44분 신상은 어시스트 받아 11위 확정 극장골
오는 3·7일 K리그2 수원 삼성과 승강 플레이오프

제주SK FC가 시즌 최종전에서 김승섭의 결승골로 다이렉트 강등 위기에서 탈출했다.

제주SK는 30일 오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5’ 파이널B 38라운드 울산 HD FC를 상대로한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제주는 이날 경기 전방 유리 조나탄과 남태희를 세우고 중원 유인수·이창민·이탈로·김준하, 수비라 인에는 안태현과 임제민·송주훈·김륜성, 골키퍼는 김동준이 맡았다.

제주는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전반전부터 총력전에 나섰지만 앞선 볼 점유율에도 제대로 된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허약한 공격력을 드러냈다.

후반에 들어서도 제주의 공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전반전처럼 이창민의 롱패스에 이은 왼쪽 김륜성의 크로스를 노렸지만 불이 유리 조나탄의 머리에 닿기 전에 차단되는 패턴이 반복됐고 오히려 후반 중반 이후에는 볼 점유율에 밀리면서 울산 루빅손에게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제주 김정수 감독대행은 김준하와 유인수, 유리 조나탄까지 불러들이고 김승섭·최병욱·신상은을 투입하며 선제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후반 44분 이날 경기의 승운은 제주로 향했다. 리그 후반 김천 상무에서 복귀한 김승섭은 울산의 공격이 차단된 후 빠르게 신상에게



30일 K리그1 울산HD FC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제주SK 김승섭.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넘어온 볼을 골대 왼쪽에서 받아 단독 드리블로 조현우와 1대1 기회를 잡은 후 결승골로 마무리했다.

제주는 10승9무1패 승점 39를 획득하며 시즌을 리그 11위로 마무리했다.

시즌 최종전 다이렉트 강등에서 벗어나 리그 11위를 확정된 제주는 K리그2 2위를 차지한 수원 삼성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승강 PO(12월3·7일)를 치러 최종 잔류 여부를 가린다.

한편 시즌 막판 대역전을 노리며 이날 끝까지 탈출을 시도했던 대구 FC는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기며 내년 시즌 K리그2 강등이 확정됐다.

워싱턴기자 yswi1968@ihalla.com



빙판 위 환상의 호호 30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임해나와 권예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 둘은 국내 유일의 시니어 아이스댄스팀으로 사실상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이현중 빛나는 농구, 중국전 2연승 도전

FIBA 월드컵 아시아예선 3년만 승전고… 오늘 2차전

원정에서 중국을 상대로 3년 만의 승리를 거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번엔 홈 코트에서 12년 만의 중국전 2연승에 도전한다.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12월 1일 오후 7시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중국을 80-76로 물리쳤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치른 2022 FIBA 아시아컵 예선 1차전 이후 3년 4개월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이현중(나가사키)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역대 최다인 9개의 3점을 쏜 것을 포함해 33점을 쏟아내고 14리바운드를 몰아치며 승리의 주역으로 나섰다.

한국은 내친김에 중국전 2연승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승리의 선봉엔 이현중이 설 것으로 보인다.

높이에 외곽포를 겸비한 데다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이현중이 2차전에서도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중국과 또 한 번 대등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차전에서 13점 7어시스트를 올린 이정현(소노), 공격과 수비에 두루 능한 안영준(SK), 골 밑에서 상대의 힘을 빼줘야 할 이승현(현대모비스) 등 동료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이현중은 1차전 후반 들어 중국의 집중 견제에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한국의 리드 폭이 좁혀져 막판 진땀 승부를 펼쳐야 했다.

대표팀으로선 2차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이현중의 고립을 최대한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

‘메시 1도움’ 마이애미, MLS 결승 진출

아옌데 헤트트릭 앞세워 뉴욕 시티에 5-1 완승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활약하는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가 처음으로 MLS컵 플레이오프(PO) 동부 콘퍼런스 우승을 차지하고 대망의 결승에 올랐다.

인터 마이애미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뉴욕 시티FC와 MLS컵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전을 치러 헤트트릭을 기록한 타데오 아옌데의 활약으로 5-1 대승을 거뒀다.

이제 마이애미는 서부 콘퍼런스의 샌디에이고FC-밴쿠버 화이트캡스 승자와 최강자 자리를 놓고 오는 12월 7일 홈구장인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메시가 뉴욕 시티의 집중 견제에 묵이자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공격수 아옌데가 해결사로 나섰다.

아옌데는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

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23분에는 조르디 알바의 크로스를 머리로 돌려놓아 추가 골을 뽑았다.

마이애미는 전반 37분 뉴욕의 저스틴 하크에게 헤딩골을 내줘 2-1로 쫓긴 채 하프타임을 맞이했다.

이후 메시가 후반 22분 마테오 실베티의 득점을 도와 팀에 다시 2골 차 리드를 얻었다.

메시는 지난 24일 신시내티와의 동부 콘퍼런스 준결승(4-0 승)에서 1골 3도움을 올려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통산 공격포인트 1300개를 쌓은 선수가 된 바 있다.

여유를 찾은 마이애미는 후반 38분 역습 상황에서 텔라스코 세고비아가 알바에게 내준 공을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로 돌려받으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승부를 더 기울였다. 후반 44분에는 아옌데가 야닉 브라이트의 침투패스를 이어받아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썩기를 막았다. 연합뉴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마이애미 선수들. 연합뉴스

이창호, 통산 1968승 조훈현과 최다승 타이

오늘 최다승 경신 도전

살아있는 ‘바둑 레전드’ 이창호(50) 9단이 마침내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수립했다.

수소도시 완주의 주장인 이창호는 30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인크레디웨어 레전드리그 플레이

오프(PO) 1차전에서 GOGO 양양 의 2지명 최규병 9단을 241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제압했다.

이창호는 개인 통산 1968승(1무 814패)째를 수확해 스승 조훈현 9단과 최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이창호는 1일 열리는 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역대 최다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45 KBS 뉴스 930 9:5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여정(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굿모닝 대한민국(재)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천밀한 리플리(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2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 11:15 건강의 재구성 섹터(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00 보석아내 건강 수다	8:50 시대를 걷는 미술관 9:40 PD로그(재) 10:30 한국기행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55 볼록스 17:00 페파 피그 17:50 자이언티 팽TV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세상은 지금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특별 생방송 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15:10 보물섬(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캐리야 학교 가자(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사랑의 모든 다름 17:2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5: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안녕! 티타임 17:30 태양을 삼킨 여자(재)	12:00 SBS 12 뉴스 12:45 생동아내 13:00 투데이(재) 14:00 뉴스브리핑 15:00 생활의 달인(재) 16:00 캠프가자 17:00 SBS 오뉴스 17:30 러브인 제주 17:15 JIBS 저녁 뉴스 17:30 꾸러기 탐구생활(재)	9:00 KCTV 9시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방송관련조정위원회 13:00 제주전국국악대전 14:00 공연에 반하다 15:20 우리동네 히어로 시즌1 16:00 캠프가자 17:00 KCTV 17시 뉴스 17:30 러브인 제주 18:00 KCTV19시브 칼렉션 19:00 KCTV 종합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사내거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여행기 18:05 달리는 라디오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뉴스헛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남극의 날 기념 기후 위기 특집 남극의 세프 3부 22:25 남극의 날 기념 기후 위기 특집 남극의 세프 4부 23:55 MBC 뉴스 25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미리와 발난 아바들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타임W 23:35 다름 인사이드(재)				
18:00 경채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천밀한 리플리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 21:50 누난 내게 여자야 23:20 아이 러브 스포츠 23:45 스모킹 건(재)				
18:05 다름 M 19:05 태양을 삼킨 여자 19:40 특집 MBC 뉴스데스크 21:00 남극의 날 기념 기후 위기 특집 남극의 세프 3부 22:25 남극의 날 기념 기후 위기 특집 남극의 세프 4부 23:55 MBC 뉴스 25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1일

김종삼 지단(組長)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협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일로 약속이 있거나 연력이 온다. 48년 마음이 편하면 재상이 풍요롭다. 60년 매매 사업 등에 희망이 보이지만 자녀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72년 하는 일에 정체가 오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약속은 보류가 된다. 84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집안에 화목 또는 집사가 찾아온다.

37년 약속이 생기면 먼저 도착해 마중하면 나를 존경한다. 49년 과식이나 과음은 금물. 건강을 챙겨야 한다. 61년 집안에 애·경사로 참석하나 부부간에는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 73년 업무나 직장에서는 원만하나, 형제 자매 일에는 불화가 생긴다. 85년 결정할 일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신속해야 유리하다.

38년 담이 생기거나 기침이 많이 나니 건강을 신경써야 한다. 50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62년 이는 게 할이니 부족함을 채우는 한해가 되도록 한다. 74년 가족간에 화합도 필요하고 경제적 창출도 중요하다. 86년 친구나 선배를 찾아가 나의 고민을 알려보자. 행운은 동쪽.

39년 자녀가 찾아오고 수입이 생기는 날. 51년 문서계약 시에 언쟁이 따르니 조심. 63년 학원업, 도서관업에 미소. 고객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 75년 외출할 일이 생기면 남자는 곤색, 여성은 노란색이 인기가 있다. 87년 처음 출발점은 좋으나 마무리가 약해 결말이 안 나는 수가 있다.

40년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겨 귀가 후 다시 외출하게 된다. 52년 자존심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 얻는 것이 생긴다. 64년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거나 할 일이 많아지니 오직 내 일에만 전념하라. 76년 집안에 안부 전화가 필요. 우환이나 질환이 찾아옴에 생긴다. 88년 집중력이 생기는 시간을 활용하라.

41년 영업에 이익은 있지만 변화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53년 상대방의 말에 자극을 받거나 논쟁은 나를 옹졸하게 만든다. 65년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해야. 77년 용감한 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89년 친구들과의 약속이 이중으로 겹쳐지고 고민도 생긴다.

42년 청창도 때에 따라 에너지로 만든다. 청창을 많이 하면 좋다. 54년 자녀 또는 남편문제로 고민이 쌓인다. 66년 좋은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밑에 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78년 이별의 시간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도 나를 맞이한다. 90년 문서 매매에 유리하고 행운이 북쪽에 있다.

43년 집안에 손발 곳이 많다. 미루지 말고 손을 보는게 현명하다. 55년 금속제품이나 자랑업종은 분주하고 이익이 증가함. 67년 전문성을 가진일이 능률이 오르고 이익이 따르니 자신감을 갖고 뛰어들라. 79년 전문직업은 분주하고 필요 시 정보를 활용하라. 91년 논쟁이 진행되고 질투나 배신이 일어나 조선.

44년 실언을 하기 쉬우니 냉정한 판단. 언행자제가 필요하다. 56년 문서 매매 또는 직업에 변동이오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68년 지나친 행동은 주변에 불만을 초래. 행동을 자중하면 득이 된다. 80년 봉사활동, 동아리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마라. 92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친구와 논쟁한다.

45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노후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7년 농수산분야·마트는 호전되나 건강은 주의해야. 69년 전문업은 활기가 오니 부하직원 격려 필요. 81년 취직 승진 또는 창업 등에 길한 운이니 외부활동에 지출할 것. 93년 현재 결심이나 재물이 모이지 않아도 기다리면 나아진다.

46년 나태해지면 주변에서 눈총을 주거나 가정에서 불화 발생. 58년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70년 정상에 도착한 심정이나 집중력이 필요하다. 뒷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82년 차분히 맡겨진 일을 추진하며 자력중 정비. 94년 기계 금속 제조분야 호전. 몸이 바쁘다.

47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애써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9년 이동수가 생기니 동남간이 유리하고 양띠가 귀인에 해당한다. 71년 행운이 서쪽에서 오고 동업의가 생기기도 한다. 83년 이성교제나 소개팅이 앞도 고민하게 된다. 95년 친구나 이웃과 친목 또는 어울려야 좋다.